

- 주요 뉴스: 미국 법원 항소심 진행 중 상호관세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과 화동
 - 연준 주요 인사, 관세 철회되면 금리인하 가능. 현행 통화정책은 적절하다고 판단
 - 미국 1/4분기 GDP(수정치), 속보치 상회.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전주비 평가
 - 일본 총리, 미국 트럼프와 관세 의견 교환. 재무상은 초장기 국채 금리 낮다고 언급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 하반기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장 초반 크게 올랐으나 항소법원 판결 이후 상승폭 축소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전주 대비 증가한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7%,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카고 연은 총재의 금리인하 가능 발언 등으로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5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71.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4.6원, 0.14% 하락). 한국 CDS 약보합

		5/29일	5/28일	전일대비			5/29일	5/2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12.2	5,888.6	+0.40%	국채 금리 10y	미국	4.42%	4.48%	-6bp
	유럽	547.88	548.93	-0.19%		독일	2.51%	2.55%	-5bp
	중국	3,363.4	3,339.9	+0.70%		영국	4.65%	4.73%	-8bp
	일본	38,433	37,722	+1.88%	CDS 5y	한국	30bp	30bp	-0bp
	한국	2,720.6	2,670.2	+1.89%		중국	52bp	52bp	-0bp
환율	달러지수	99.33	99.88	-0.54%	위험 지표	EMBI+	-	383	-
	유로화	1.1370	1.1292	+0.69%		VIX	19.18	19.31	-0.67%
	엔화	144.21	144.84	+0.44%		WTI유	60.94	61.84	-1.46%
	위안화	7.1859	7.1959	+0.14%	원자재	구리	467.6	464.4	+0.68%
	원화	1,375.9	1,376.5	+0.04%		금	3,317.9	3,287.5	+0.9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법원, 항소심 진행 중 상호관세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과 회동

- 항소법원은 권한 남용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국제무역법원의 1심 효력을 중단.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진행 중에 이전처럼 상호관세 부과가 가능. 다수의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이 결국 보수 성향 판사들의 비중이 높은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
- 백악관의 해시 국가경제위원장은 기존의 무역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항소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피력. 아울러 다른 국가 혹은 지역과의 협상에서 3건이 거의 합의 단계에 있다고 첨언. 나바로 무역·제조업 고문은 다른 법률을 이용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사 피력
- 시장에서는 1심 법원 결정에도 정부가 무역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15%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무역법 338조에 따른 50% 관세 부과)이 존재한다고 분석(Goldman Sachs).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질서 개편 의지를 고려할 때 관련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Natixis)
-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파월 의장과 첫 대면 회동을 가졌고, 여러 경제 사안을 논의. 연준은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정책 결정은 전적으로 경제 지표 및 향후 전망에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아울러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관련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연준은 법률에 따라 최대 고용과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선택할 것임을 확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주요 인사, 관세 철회되면 금리인하 가능. 현행 통화정책은 적절하다고 판단

-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는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할 경우, 관세가 철회된다면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 다만 지금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들이 선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관망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
-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연준이 연율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행 정책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

■ 미국 1/4분기 GDP(수정치), 속보치 상회.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는 전주비 증가

- 1/4분기 GDP(수정치, 전비기연율)는 -0.2%를 기록, 속보치(-0.3%) 대비 소폭 개선. 이번 결과는 늘어난 민간 소비 및 투자에 기인. 반면 수입과 정부지출은 다소 둔화. 해당 분기 PCE 물가지수 상승률(연율)은 3.6%
- 한편, 1/4분기 세전 기업이익은 2.9% 줄어, 팬데믹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 일부에서는 이번 결과를 관세 부과 여파인 것으로 추정
- 5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4만건으로 전주비 1.4만건 늘어 예상치(23만건) 상회. 일부에서는 경기 불확실성, 관세 부과 등으로 해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4월 잠정주택판매지수는 금리상승 등으로 전월비 6.3% 하락한 71.3 기록

■ ECB 드 갈로 위원, 추가 금리인하 가능. 영란은행 총재는 EU와의 협력 기대

- 드 갈로 위원은 역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이에 향후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ECB가 6월 주요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7월에는 동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영란은행의 베일리 총재는 무역 및 금융서비스 관련하여 EU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기대. 특히 최근 영국과 EU가 무역 및 방위 부문에서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환영받을 수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

■ 일본, 미국 트럼프와 관세 의견 교환. 재무상은 초장기 국채 금리 높다고 평가

- 이시바 총리는 전화를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고, 이전과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언급. 아울러 보호주의 시대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한편, 가토 재무상은 자국의 초장기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 또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첨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5/3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4월 PCE 물가, 개인 소득 및 지출, 5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발언. 독일 5월 소비자물가 및 4월 소매판매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법원의 관세 부과 제동, 트럼프의 우회 가능성 속 불확실성은 확대 - The Economist

(The courts block Trump's tariffs. Can he circumvent their verdict?)

-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결. 다만 트럼프는 1974년 무역법에 따른 15% 이하 관세나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무제한 관세 부과 등 우회 방안을 모색하며 기존의 정책 기조 이어갈 것으로 예상
- 판결 직후 S&P500지수 선물은 1.5% 상승했고, 이는 상호관세가 완전히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 기대가 반영. 그러나 이번 판결로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집행 권한이 모호해졌으며, 그 결과 무역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 향후 교역국과의 협상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Goldman Sachs)

■ 미국 채권시장, 과거의 역사 고려 시 정상화 과정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 - 블룸버그

(If Anything, Bond Markets Are Returning to Normal)

- 미국 채권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자들은 우려를 표명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현 금리는 정상 수준. 첫째, 1950년대 이후 10년물 국채금리는 극단적 시기(1980~1985년, 10% 상회)를 제외하면, 평균이 5.1%로 현재보다 약간 높은 수준. 둘째, 최근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이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발생하던 패턴의 일부
- 셋째,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장기 지속으로 정상 수준의 금리가 이례적으로 보이는 현상 발생. 넷째, GDP 대비 3% 이내 재정적자와 5%의 명목 GDP 성장률 가정 시 현 금리에서 연방 부채 축소가 가능. 그러나, 10년물 국채금리가 7~8%에 근접하면, 관세 및 부채문제 신뢰 상실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 요구

■ 미국 주요 소매업체의 사업구조, 무역법원 판결 불구 기존 형태 유지할 전망 - WSJ

(Retailers Cheer Trade-Court Surprise, but Stick to Their Plans)

- 소매업체들은 무역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완화 가능성으로 환호하지만, 기존의 사업 계획 수정에는 소극적일 가능성. 일부 업체는 빈번한 정책 변동 상황에서 중국산 물품을 이미 대량으로 확보했기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
- 아울러, 기업들은 관세 우려로 이미 가격 인상, 지출 삭감, 인력 감축 등의 비용 완충 장치를 실행했거나 진행 중. 또한, 일부 CEO들은 생산시설 이전, 재고 소진, 수입국 다변화 등의 관세 대응 전략을 일순간의 뉴스에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

■ **주요국 채권 투자자, 정부의 무분별한 차입에 경고 - Financial Times**

(The bond vigilantes are on the prowl)

-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채권 투자자들이 정부의 과도한 차입에 경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국채를 적극 매입할 수 없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확장적 재정을 고수하기 때문. 이에 국채 수요가 위축되며 달러화와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
- 시장에서는 두 가지 해결책만 존재. 하나는 재정 긴축을 위한 예산안 수정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가능할 정도의 미국 국채 가격 하락(Deutsche Bank). 채권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감소하는 가운데,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 채권시장의 리스크가 다른 자산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미국 트럼프 관세 판결, 美英 무역합의 이행 시기를 지연시킬 소지 - Financial Times**

(Trump tariff ruling risks slowing down delivery of UK trade deal)

■ **미국 非은행 금융기관의 성장, 정책 불확실성 속 잠재적 위험 요인 내재 - The Economist**

(American finance, always unique, is now uniquely dangerous)

■ **미국 정부, 중국발 제조업 충격 교훈 삼아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대비 필요 - 블룸버그**

(The AI Job Suck Is the China Shock of Today)

■ **미국 정부의 대학 지원 중단, 인재 유출과 연구 경쟁력 상실 초래할 우려 - 블룸버그**

(If America doesn't want Harvard, somebody else will)

■ **유로존 내 규제, 미국과의 무역전쟁보다 더 심각하게 경제 성장을 저해 - WSI**

(The EU Doesn't Need Trump for a Trade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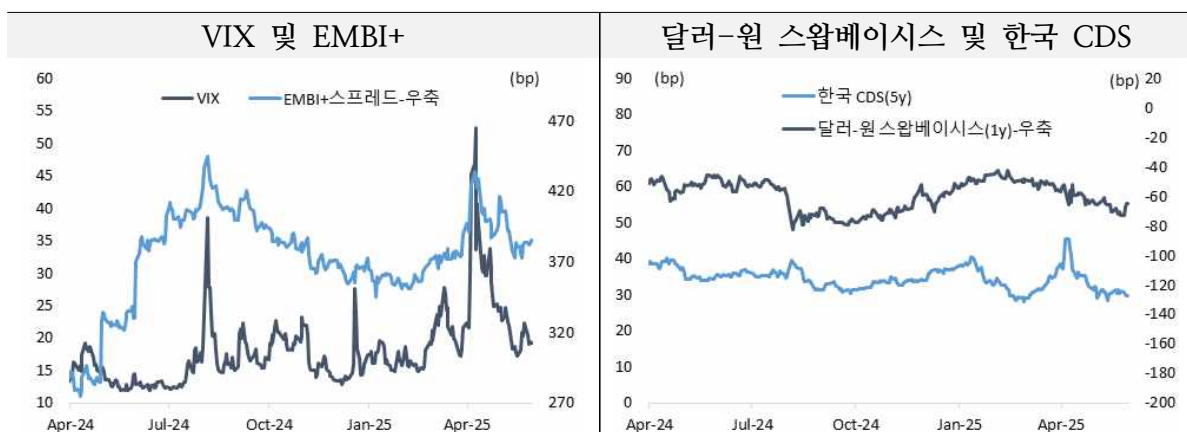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